

1970년대 일본에서의 김지하 담론*

—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許準行**

- | | |
|---------------------------------|------------------------------------|
| I. 일본에 소개된 김지하 미발표 시와 그에 관한 평론들 | III.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야기하는 효과들 |
| II. 일본에서 김지하를 돕는다는 의미 | IV. 일본 내 김지하 표상의 재고 가능성 |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1976년 일본에서 무로 겐지(室謙二)가 편집하여 출간한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일본에서의 김지하 담론을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 시기 김지하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외부적 관점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을 논의의 목적으로 삼는다.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는 그동안 다수를 차지하던 김지하 작품집 형태를 벗어나 평론집 구성을 취한 책이다. 더불어 김지하의 미발표 시로 기재된 작품들-「스무 살」(「二十歳」), 「한 송이 박꽃」(「一輪の夕顔」), 「소묘」(「素描」), 「소매치기」(「スリ」), 「대화」(「対話」), 「역전」(「駅前」), 「금대리 고개」(「金岱里峠」), 「새로운 소리」(「新しい音」), 「웅골」(「ウンゴル」), 「여름」(「夏」), 「잊지마」(「忘れるな」)가 실려 있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들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시들이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에 배치되어 발생하는 독해 및 수용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당시 일본 내 김지하는 대체로 반정부적인 정치의식이 투철한 시인으로 점철되었다고 평가되어왔다. 본고에서는 김지하 미발표 시들과 그에 관한 평론들을 검토한 결과 그것이 일률적이

* 이 논문은 2022년도 성균관대학교 박사후 교내 연수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지 않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일본 내 김지하 담론에 제국과 식민지에 관한 역사적 문제도 거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제적 공적 권력의 공모와 대항 권력의 연대가 충돌하는 가운데 김지하 담론은 하나의 표상이 아니라, 다기한 스펙트럼으로 나뉘고 얹혀있다.

주제어 : 김지하, 일본, 한일관계, 미발표시, 1970년대

I. 일본에 소개된 김지하 미발표 시와 그에 관한 평론들

본고는 1970년대 일본에서 논의된 김지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당 시기 김지하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외부적 관점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분석 대상으로는 1976년 일본에서 ‘김지하를 돕는 모임’ 사무국장을 맡았던 평론가 무로 켄지(室謙二)가 편집하여 출간한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를 검토한다.¹⁾ 근래에 ‘1970년대 일본과 김지하라는 텍스트’를 실증적으로 논구한 장문석의 정리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김지하 관련 단행본과 잡지는 22종에 달한다.²⁾ 그 가운데 본고가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에 관심을 두는 까닭은 이 책이 이전까지 다수를 차지하던 자료 모음 위주의 김지하 작품집이 가진 형태를 최초로 벗어난다는 데 있다. 이 책에는 그동안 일본어로 번역된 김지하 작품집 등을 독해한 일본 문인들이 그의 시와 사상을 분석한 평론들이 여러 편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 소개된 적 없는 김지하의 미발표 시 11편이 수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요한다.³⁾

「스무 살」(「二十歳」), 「한 송이 박꽃」(「一輪の夕顔」), 「소묘」(「素描」), 「소매치기」(「スリ」), 「대화」(「対話」), 「역전」(「駅前」), 「금대리 고개」(「金岱里峠」), 「새로운 소리」(「新しい音」), 「웅골」(「ウンゴル」), 「여름」(「夏」), 「잊지마」(「忘れるな」)가 그 작품들이다. 한국어 시 원본이 실려 있지 않고 역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 시들이 김지하의 작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가령 ‘한 송이 박꽃’이라는 시 제목은 그가 쓴 “네겐 한 권의 함석헌과 한 송이 박꽃뿐 / 너는 그것을 원했다 황량한 옥금리 들녘 / 황토로 변하기를 너는 원했다”⁴⁾라는 「매장」의 구절과 겹친다.

1) 室謙二 編, 『金芝河: 私たちにとっての意味』, 三一書房, 1976.

2) 장문석, 「현해탄을 건넌 ‘타는 목마름’: 1970년대 일본과 김지하라는 텍스트」, 『상허학보』 58, 상허학회, 2020, 153~155면 참조.

3) 주식에는 ‘김지하를 돕는 모임’이 그의 미발표 시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1975년 3월 13일 김지하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는데, 그때 그가 남긴 노트와 원고용지에 적힌 시를 입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날짜가 쓰여 있지 않아 창작 연도는 불확실하다. 다만 내용으로 짐작해보건대 1972년 후부터 재구속되기 이전까지의 시들이 아닐까 하고 무로 켄지는 짐작한다.

4) 김지하, 「매장」 부분, 『황토』, 한얼문고, 1970.

이와 같은 표현은 김지하가 아닌 동시대 타 시인의 시구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더불어 김지하의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해도 무방할 강원도 원주를 배경으로 한 「금대리 고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⁵⁾ 이 시들이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그의 작품일 확률을 높인다. 구금된 김지하를 구명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비어』와 『오적』 등 저항적 풍자시가 주로 일본 내에 번역되던 상황에서 “풍자시와는 다른 김지하의 직설적인 심정을 표명한”⁶⁾ 것으로 보이는 “서정시”를 실은 사실을 자평하는 부분도 특징적이다.

한국에 발표된 적 없는 김지하 시들을 무로 겐지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대하여 오무라 마스오는 1980년까지의 일본 내 번역된 김지하 작품을 논하면서 “특수한 루트를 통하여 자료를 입수하고, 원문을 공표하지 않거나, 타자에 의한 번역을 허락하지 않으며, 자신들 번역을 고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태도에는, 무언가 권력자적인 냄새마저 난다.”⁷⁾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고 해도, “특수한 루트를 통하여 자료를 입수하고, 원문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에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1970년대 쓰인 김지하 시의 결정본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음을 지시하고,⁸⁾ 일본에 수용된 김지하 시와 그에 대한 담론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고 있었는가를 다시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한다. 본고에서는 이 책에 담긴 몇몇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서두에 밝힌 1970년대 김지하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외부적 관점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작업에 역점을 둔다.

5) 김지하가 쓴 「치악산」(『애린 1』, 실천문화사, 1986)에 “노래 소리 낭자한 금대리 쪽으로”라는 시구가 있다.

6) 室謙二 編, op.cit., p.30.

7) 大村益夫, 「Kim Jiha 作品翻訳における語学上の問題点」,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紀要』第21号1980.3; 『朝鮮近代文学と日本』, 緑蔭書房, 2003, p.336.

8) 김지하가 직접 참여하여 1963년부터 1986년까지의 시 텍스트를 확정된 책으로는 김지하, 『결정본 김지하 시전집 1』(도서출판 솔, 1993)이 있다.

II. 일본에서 김지하를 돕는다는 의미

이를 위해서는 먼저 김지하와 일본의 관계를 개략적으로나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8년 겨울 김지하는 가와사키 시의 초청으로 처음 일본을 방문한다. 나리타 공항에 내린 그에게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일본에 온 소감을 묻는다. 김지하는 이렇게 되묻는 식으로 답하였다. “민족적으로는 원수의 나라, 개인적으로는 은인의 나라에 왔다. 두 느낌은 과연 어떤 관계일는지?”⁹⁾ 1970년대 한국저항운동의 상징이 된 김지하가 박정희 정권과 최초로 맞부딪친 사건은 1964년 한일회담이었다. 5월 20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열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규탄대회’에서 김지하는 「뜻 민족적 민족주의」라는 제목의 조사를 쓰면서 학생운동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 그 뒤 6월 3일 시위를 이끌던 그는 ‘6·3사태’의 지도부로서 수감된다.

“첫 감옥 체험이었으니 내 나이 스물 셋이었다. (……) 그때 처음으로 역사의 엄중성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와는 반대되면서, 그럼에도 역사로 돌아가는 민중의 삶, 그 내면적 카오스의 생성의 시간을 막연하지만 나는 이미 생득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근거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아는 만큼 나는 참여하기 시작했고 만신창이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¹⁰⁾ 36년간 식민 지배의 과오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미학과 대학생 김지하를 투사 시인 김지하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니까 김지하가 속한 ‘6·3세대’의 탄생 배경-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감의 바탕에는 반일감정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김지하의 작품을 가장 주목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 1971년 7월 5일 동아일보는 이러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소개는 권력에 반항하는 저항문학 쪽에 많이 기울어 김지하 씨가 일본에서 더 큰 인기”¹¹⁾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를 작성한 김병익은 “일본 지식인 사회의 일반적인 풍조에 사소설 전통이 강한 일본문학에서 찾기 힘든 고민과 저항을 이들 작품에서 발견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논평한다. 꼭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지 단정할 수 없으나, 일본은

9) 김지하, 「332 일본」, 『김지하 회고록-흰 그들의 길 3』, 학고재, 2003, 277면.

10) 김지하, 「158 계엄령」과 「159 첫 미소」, 『김지하 회고록-흰 그들의 길 2』, 학고재, 2003, 47~54면.

11) 「메마른 일본에 싹트는 한국문학」, 동아일보, 1971년 7월 5일.

김지하의 문학(정치적) 활동과 구명에 관심을 보였다. 「오적」이 <사상계> 5월호에 발표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1970년 6월 26일 <주간 아사히>에 「오적」이 소개되었고, 1971년 12월에는 일본 중앙공론사에서 「오적」 등이 수록된 김지하 작품집 『긴 어둠의 저편에』를 출간하였다.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김지하의 구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들도 일본 지식인들이었다. 김지하의 감형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일본 펜클럽 대표 3명은 김지하의 감형 소식을 접하고 1974년 7월 27일 내한하여 기자 회견을 열었다.¹²⁾ ‘김지하를 돕는 모임’ 단장도 동경대 분쟁에 기동대가 투입된 사실에 항의하여 교수직에서 사직한 히다카 로쿠로(日高六郎)였다.¹³⁾ 동아일보는 히다카 로쿠로를 필두로 한 회원들이 김지하의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전하였다.¹⁴⁾ 또한 1975년 3월 18일 동경에서 철학자 쓰루미 순스케(鶴見俊輔)¹⁵⁾ 등 일본 지식인 76명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김지하를 재구속한 사실에 항의하는 성명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낼 것이라는 기자 회견을 마련하였다.¹⁶⁾

나중에 김지하는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외국의 벗들”이라고 칭한다. “나는 외국의 벗들이 나의 민족의식과 인류의식 사이의 오류 없는 통일성을 발견하고 나의 정당성과 그로 인한 나의 고통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사심 없이 줄기차게 나를 지원하고 구명 운명을 펼친 결과 끝끝내 죽임당하지 않고 이리 살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일본 내의 김지하 구명위원회의 조직자인 미야다 마리에(宮田稔營) 씨의 도움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¹⁷⁾ 자기 민족에 대한 긍정과 보편적

12) 「김지하씨 감형에 일펜클럽서 사의 대표 3명 내한」, 경향신문, 1974년 7월 30일.

13) 서경식, 「마지막 ‘전후 지식인」, 한겨레, 2018년 11월 8일.

14) 「김지하 등 돕기 국제위 대표 오명 방한 예정」, 동아일보, 1974년 8월 8일.

15) 쓰루미 순스케와 김지하의 교류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쓰루미 순스케가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관련한 문제-식민주의 비판에 관심을 갖고 실천적 활동에 나섰음을 먼저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는 베트남 반전운동을 벌이면서, 베트남 파병을 거부하고 일본으로 망명을 신청한 김동희와 오무라 수용소에 갇혀 있던 임석균을 지원하였다. 요네타니 마사후미, 「전후 일본에서 식민주의 비판 생성-쓰루미 순스케와 스즈키 미치히코의 경우」, 『일본비평』 27,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51~60면 참조.

16) 「박대통령에 항의문 김지하씨 구속 관련 日자유지식인 76명」, 동아일보, 1975년 3월 19일.

17) 김지하, 「295 외국의 벗들」, 『김지하 회고록-흰 그들의 길 3』, 학교재, 2003, 121~122면.

인류애에 기반을 둔 국제주의를 언급하며, 그는 다른 누구보다 일본인들의 도움을 떠올린다.

반일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김지하가 훗날 일본에서의 지지에 힘입어 저항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한 면이다. 물론 이때 일본이라는 국가 단위를 이루는 주체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예컨대 김지하에게 성원을 보낸 주체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시민 사회를 구성하던 진보적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한국과 연계된 여러 요소가 개입된 일본 내 문화 정치학적 담론장 속에서 김지하에 대한 호응과 반향을 이끌어냈다. 본고에서 후술할 내용을 참고하면 비교적 자명하게 드러난다. 앞에 옮긴 김지하의 발언-“민족적으로는 원수의 나라, 개인적으로는 은인의 나라에 왔다. 두 느낌은 과연 어떤 관계일는지?”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데는 이상의 제반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김지하 탄압에 대하여 왜 일본 지식인들이 유독 관심을 기울였는가? 그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려면 일본의 사회상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 현안과 연동하는 학술장의 흐름과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으로 일본 근대 사상사와 근대 한일관계사를 연구한 윤건차는 한국과 일본이 연결된 1970년대를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 하나는 ‘기생 관광’, 다른 하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원과 연대’이다. 주지하다시피 전자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세계사적 격변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일본 남성의 성적 욕망, 그들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공모가 뚜렷이 부각되는 (……) 성 노동”¹⁸⁾ 착취에 기반을 둔 경제적 욕망이 결합한 산물이었다. 반면 후자는 페미니즘·재일조선인운동 등 일본 시민 단체의 움직임과 한국 정부에 반대하는 민주화 진영이 연대한 결과였다. 이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70년대, 특히 그 전반기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혁신정당과 운동단체 등도 아직까지 냉전 구조의 대립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고 특히 진보적인 지식인은 ‘북조선 지지’로 굳어 있던 시대였다. 한국의 ‘민중’은 아직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고,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문 등에서 괄호를 쳐서(즉 ‘한국

18) 이진경 저, 나병철 역, 「제2장 국내 매춘-죽음 정치에서 인공신체적 노동으로」, 『서비스 이코노미: 한국의 군사주의·성 노동·이주 노동』, 소명출판, 2015, 162면.

(韓國)’이라고: 제대로 된 국가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옮긴이) 사용되고 있던 시대였다. 다만 한일조약 반대운동 이후 일정한 정도 한일 쌍방의 ‘연대’ 투쟁이 고양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식인·민중의 일부는 한국의 지식인·민중과의 사이에서 일본/한국 연대의 가능성을 찾는 것, 즉 한국의 지식인·민중과 지극히 기본적인 측면에서 서로 통할 수 있는 입각점을 한국 내부에서 찾아냄으로써 지금까지 한국을 표기할 때 괄호를 쳐서 부를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다.¹⁹⁾

김지하가 앞장섰던 한일조약 반대운동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 지식인들은 공동 투쟁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북한에 호의적이었던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도 한국 민중을 차츰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일본(인)이 박정희 정권의 집권과 철권 통치에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의 ‘네거티브한 유산’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남조선을 뒤덮고 있는 오늘날 불행의 씨앗은 역시 일본과 일본인이 뿌린 것이다. (……) 조선은 하나이고, 우리가 손잡을 상대는 권력이 아니다. 3천만의 한국민중, 5천만의 전 조선인 대중이다.”²⁰⁾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한 작가 요시도메 로쥬의 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민주화운동에 힘을 쏟았던 대표적 지식인이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이다. 그는 1972년 결핵요양소에 수감된 김지하를 면회한 쓰루미 순스케의 일화를 예로 들어 스스로의 활동에 아래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당신의 운동은 나(김지하)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운동을 돕기 위해서 목소리를 보탬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인의 안이한 지원운동, 연대운동을 준열하게 거부하는 자세가 깔려 있다. (……)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김지하를 도와주기 위해 시작된 일본인의 운동은 김지하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박정권을 일본이 돕고 있다는 공포스러운 상태로부터 일본인 스스로를 구하려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오히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김지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웃의 고통에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이웃을 괴롭히는 것이 되어버리고, 사실은 자신에게 있어서도 억압적인 어떤 구조 속에 있는 스스로의 모습

19) 윤건차 저, 박진우 외 역,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1945년 이후의 한국·일본·재일조선인』, 창비, 2009, 297면.

20) 吉留路樹, 「日本人の役割はなにか」, 『季刊三千里』 第10號, 1977年 夏, pp.100~105.

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자신을 구원하게 된다는 구조논리에 우리는 그때 부딪치고 있었다.”²¹⁾

쓰루미 순스케에게 전달한 김지하의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이는 그가 일본 지식인들이 벌인 지원 운동의 실질적 효과를 전적으로 부인했다기보다는, 국제적 지원 운동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시혜적 단방향성의 오류를 지적하는 발언이다. 지원의 성격을 띤 연대는 자칫하면 일방적 구호의 관계로 변질된다. 김지하를 구하려는 일본 내 움직임이 김지하에 대한 선의의 원조로 고착화되는 ‘피해자-구원자’의 이분법적 도식을 그는 “나는 기꺼이 당신들의 운동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뒤집는다. 그러므로 김지하를 도우려는 일본인들의 입장은 김지하를 가둔 한국 정부 및 이를 비호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 성격을 띤 싸움은 일본 국가의 억압적 통치성에 대항하는 일본 시민의 활동으로 내부화되는 것이다.

김지하가 쓰루미 순스케에게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이 이것이었다. 1984년 김지하가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애썼던 미야다 마리에에게 보내려고 한 전언도 이러한 견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²²⁾ 이 글에서 김지하는 미야다 마리에와 자신의 관계가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는 일본(인)이 한반도에 ‘분단과 전쟁’을 원하고 있다면서, 한국 민중이 일본인으로 부터 배워야 할 문화는 하나도 없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김지하는 “일본 민중은 한국 민중의 신선한 생명의 문화운동의 물결로부터 당신 자신들의 삶의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 민중의 생명운동에 허심탄회하게 동참함으로써 당신들 자신의 삶을 쇄신해야 할 것입니다.”²³⁾라고 주장한다.

1970년대에는 아직 그의 생명론이 본격적으로 개진되지 않았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김지하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민중의 본보기로 한국 민중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21) 和田春樹, 「韓日連帶の思想と運動」, 『世界』, 1975년 11월호, pp.54~55.

22) 김지하, 「미야다 마리에 여사에게」, 『김지하 전집 2: 사회사상』, 실천문화사, 2002. 편집자에 따르면, 원래 이 글은 김지하가 1984년 8월 15일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테이프 그대로 일본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얼마 뒤에는 공개서한 형식으로 국내에서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23) 김지하, 「미야다 마리에 여사에게」, 앞의 책, 571면.

일본(인)을 성찰하기 위한 매개로 김지하는 1970년대 일본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 이른바 ‘김지하 붐’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일본에서 쓰인 김지하론이 한국에서 쓰여진 김지하론보다 양적으로 많았다. 그것은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현대문학 관련 단행본 숫자를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물론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구속되었던 김지하 문학이 국내에서는 논의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논의가 자유로웠던 일본에서 확대 재생산된 것이다.”²⁴⁾ 이러한 맥락에서 오역과 더불어 김지하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강조하여 단편적으로 일본에 소개된 김지하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오무라 마스오의 연구는 의의가 있다.²⁵⁾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오무라의 서술을 빌려 온다면, 김지하구원운동 역시 김지하가 저항시인이라는 것 외에 그에 대해 ‘정밀하고 성실하게’ 알지 못한 채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 이상을 상상하지 못한 셈이다.”²⁶⁾라고 한 문제 제기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김지하 자료 모음집 『고행: 옥중에서 우리의 투쟁』²⁷⁾을 읽고 쓰루미 순스케의 독서 기록을 검토하면서 “쓰루미의 글에서 김지하는 여전히 감옥의 김지하이며 고립된 김지하로 도움의 대상에 머물 뿐이다. (……) 쓰루미가 고백한 무력감은 김지하를 돕는다는 고정된 구조가 가져온 한계로 이해할 수 있다.”²⁸⁾라고 평한다. 그렇지만 쓰루미 순스케는 김지하와의 대면 이후 “You can not help me, I can help your movement by my resistance!(당신은 나를 도울 수 없다. 내가 저항을 통해 당신들의 운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²⁹⁾라는 언급을 그를 다루는 거의 모든 글에서 빼놓지 않는다.

이러테면 “김지하처럼 살기는 어렵다. 김지하의 사상 또한 일본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렵다.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일본인으로서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24) 장사선, 「일본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510면.

25) 大村益夫, op.cit., p.322.

26) 장문석,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일본비평』 14,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101~102면.

27) 鶴見俊輔, 「金芝河著『苦行』」(『日韓連帶』, 1979.2.), 『鶴見俊輔集 12: 読書回想』, 筑摩書房, 1992.

28) 장문석, 앞의 글, 100~101면.

29) 김지하, 「208 쓰루미 순스케」, 『김지하 회고록-흰 그들의 길 2』, 학교재, 2003, 232면. 쓰루미 순스케는 그 말을 이렇게 기억한다. “Your movement cannot help me. But I will add my voice to it to help your movement.” 鶴見俊輔, 「分断」, 『金芝河: 私たちにとっての意味』, 三一書房, 1976, pp.219~220.

모순된 느낌을 나는 갖는다. 김지하를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이 있는 곳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³⁰⁾와 같은 고백을 도움의 시혜적 구조에 침윤된 사고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관건은 누군가 도움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도움을 주려는 대상이 수동적인 위치에 서지 않고, 도움을 주려는 상대를 역으로 구할 수 있는 상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래서 쓰루미 순스케는 김지하를 구하기 위한 일본의 서명 운동·항의 시위·전단 배포·단식 등의 활동이 도리어 그에게 해가 되지 않았을까를 염려한다. “동시에 만약 그를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내 안에 있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김지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잘 파악하고 있었다.”³¹⁾라는 서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도움은 선량한 의도와 별개로 도움받는 자에게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점을 우려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무분별한 도움에 따라올 부작용을 면밀하게 인식하고, 도움 주는 자에게 거꾸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그들은 공유하였다.

그러하기에 일본에서 김지하를 돕는 의미는 도움의 위계를 고착화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이것은 김지하 텍스트의 번역 및 해석과 평가를 아우르는 출판물의 혼조속에서,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상이한 김지하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양상이 예증한다. “외부에서 김지하를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일본의 김지하 출판물이 누락한” “김지하의 문학”과 “김지하 문학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얽힘에 대한 인식”³²⁾을 짚어내는 주장도, 김지하에 관한 저항 혹은 민중 시인이라는 보편적 이해를 넘어서는 논의의 토대를 1970년대 한국 문학장 역시 제대로 구현할 수 없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지하 문학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얽힘에 대한 인식” 또한 해당 논문에서 거명하는 시부야 센타로(渋谷仙太郎) 등이 쓴 해설을 비롯해 김지하에 관한 일본 내 여러 논평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김지하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개별 텍스트 독해가 요구된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를 논한다.

30) 鶴見俊輔, 「分断」, 『金芝河: 私たちにとっての意味』, 三一書房, 1976, p.239.

31) ibid., p.220.

32) 장문석, 「현해탄을 건넌 '타는 목마름': 1970년대 일본과 김지하라는 텍스트」, 145~146면.

Ⅲ.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이야기하는 효과들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에는 기획자 무로 켄지를 비롯해, 미야다 마리에 · 마츠기 노부히코(真繼伸彦, 소설가) ·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소설가) · 카타기리 유즈루(片桐ユズル, 시인) · 김달수(소설가) · 김석범(소설가) · 타치바나 켄노스케(橘賢之助)³³⁾ · 타부치 후미오(田淵文男, 종교학자) · 카사하라 요시미츠(笠原芳光, 종교학자) · 와다 하루키 · 쓰루미 순스케의 글이 실려 있다. 이 책의 머리말을 쓴 무로 켄지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어느 일본 작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녀는 한국 관리와의 식사 자리에서 김지하는 삼류 시인이라는 말을 듣는다. 일본에 돌아온 그녀는 그 말을 무로 켄지의 친구에게 전하였고, 그 이야기가 그의 귀에도 들어온 것이다. 무로 켄지는 김지하가 삼류 시인이라는 관리의 평가를 일축한다. “그 관리에게나 나에게나 문제는 김지하가 ‘삼류 시인’이 아니라, 일류 · 이류 · 삼류라는 표현과는 관계없는, 터무니없이 훌륭한 시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한국 관리도 우리도 김지하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³⁴⁾ 이러한 그의 언급은 김지하의 독특한 위상을 부각한다. 김지하는 문학성 등을 따지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는 시인일 수 없고, 그것을 훌쩍 넘어서는 내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지하가 한국 정부에 반하여 정치적 활동을 벌이다 감옥에 갇힌 시인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타락한 정부가 가둬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정치성’을 담지한 시인은 일류 · 이류 · 삼류라는 세간의 문학적 평가에 갇히지 않는다. 김지하가 “터무니없이 훌륭한 시인”이라는 무로 켄지의 명명은 그렇게 성립한다.³⁵⁾ 그러면서 이

33)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지 못하였다. 다만 톨버트 맥카롤(Tolbert McCarroll)가 쓴 『シリーズ黙禱と祈り ①十字架の道行』(フリープレス, 1997)의 번역자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34) 室謙二, 「まえがき」, op.cit., p.3.

35) 이와 반대로 오무라 마스오는 일본 내 김지하 논의 등에 얽힌 정치 편향을 비판한다. “말하자면 정치적 사건이 없었다면 일본 사회는 한국문학을 돌아보지 않았으리라고 해도 좋다. 그 경향은 현재에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치 우선인 것이다.” 大村益夫, 앞의 책, 322면. 그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른바 ‘순문학’ 논의에서조차 문학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다. 특히 검열과 금서 지정 등 정부의 출판 규제가 횡행하고, 『오적』 같은 시의 게재가 필화로 불거지던 1970년대 한국 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모든 것이 정치 우선”이라는 오무라 마스오의 비판도 기왕에 축적된 문학의 정치성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재검토되

책은 시인 김지하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하여, 1부에 「스무 살」을 비롯한 김지하의 미발표 시 11편을 싣는다. 그 뒤를 이어 미야다 마리에가 쓴 「김지하 약전」이 실려 있다.³⁶⁾ 그녀는 “전라도의 자식”인 그가 지금은 무기징역을 언도 받은 수인으로 지내고 있음을 서술한다. 1부의 마지막은 마즈기 노부히코가 1976년 3월 24일 김지하의 재판 과정을 보고 쓴 「방청기」이다.

2부는 김지하 (작품)론이라고 할 만하다. 여기에는 오에 겐자부로가 쓴 「답시에 대하여」, 가타기리 유즈루가 쓴 「김지하 같은 불순한 시는 좋다」, 김달수가 쓴 「조선에서의 문학과 정치」, 김석범이 쓴 「‘恨’과 ‘양심선언」³⁷⁾이 수록되었다. 3부는 김지하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 묶여 있다. 타치바나 켄노스케가 쓴 「‘산티아고 선언’ 탈환으로」, 타부치 후미오가 쓴 「김지하의 가톨릭 · 래디컬한 사상의 근원」, 카사하라 요시미즈가 쓴 「‘神과 혁명의 통일’은 가능한가」가 그것이다. 3부에 이어 4부도 비슷한 구성을 띤다. 무로 켄지가 쓴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 와다 하루키가 쓴 「포복 · 죽음 · 혁명」, 쓰루미 순스케가 쓴 「분단」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지하의 「양심선언」과 「기록 · 김지하를 돕는 모임」으로 마무리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지하의 약전을 쓴 미야다 마리에나 조선의 문학과 정치를 주제로 글을 쓴 김달수가 무엇보다 김지하가 ‘전라도의 자식’임을 주목한다는 점이다. 김달수는 김지하의 「고행...1974」의 한 대목을 인용한다. “저주받은 땅 전라도의 아들답게 수갑을 차고, 천대받는 사람들 ‘하와이’의 시인답게 한과 미칠 듯한 분노와 솟구치는 통곡을 가슴에 안고, 10여 년 전 옛날과 똑같은, 낡고 먼지 이는 그 가난한 거리에 못난 아들이 이제야 돌아왔노라 인사드리면서 나는 서서히 내 가슴속에 미소가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다.”³⁸⁾ 김달수는 ‘저주받은 땅 전라도’라는 것은 한국에서의 근본적인 차별 기제임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고 자란 김지하는 누구보다 반역적, 혹은 혁명적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내재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어야 한다.

36) 이 글은 『김지하-그의 문학과 사상』(도서출판 세계, 1985)의 ‘보론’으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 한국어판은 원문에 쓰인 정치적 단어를 상당 부분 생략하였다. 예컨대 원문의 소재목 중에 “生命ある限り独裁と闘う(생명이 있는 한 독재와 싸운다)”가 있다. 1975년 출옥한 김지하의 성명을 인용한 부분인데, 한국어판에서는 “생명이 있는 한……”으로 옮겼다.

37) 이 글 역시 『김지하-그의 문학과 사상』에 번역되어 수록돼 있다.

38) 김지하, 「고행...1974 (상)」, 동아일보, 1975년 2월 25일.

이는 그 자신이 재일교포로서 일본 내에서 차별받아온 김달수에게 중시되는 면인 동시에 홋카이도(아이누인)와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의 내부 차별을 떠올리게 하는 문제 제기였다. 일본의 ‘김지하를 돕는 모임’은 일본 내 시민 사회 운동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대다수가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김지하에 대한 논의를 한국에 국한시키지 않고 억압적 체제에 저항하는 문화적 행위로 확장시켰다. 오에 겐자부로도 이 점을 거론한다. “일찍이 김지하가 만들어낸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말은 그의 예술 표현이 가진 상상력에 의한 행위지만, 어쨌든 정치적 표현 행동으로서 상황에 바탕을 둔 중대한 충격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³⁹⁾ 오에 겐자부로가 언급한 김지하의 정치적 상상력은 「고행...1974」의 구절이다. 1974년 7월 9일 열린 민청학련 사건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되자 김병곤이 “영광입니다”라고 대꾸했는데, 그때 느낀 감정을 김지하는 정치적 상상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정치적 상상력!’ 탁월한 의미에서의 정치와 예술의 통일. 어쨌든 않은 절충이 전혀 아니다. 통일! 바로 그것이다. 나는 드디어 것처럼 오랜 세월 나를 괴롭혀온 나의 민중적 운동 정치 행동과 예술적 창조 사이의 저 미칠 것만 같은 간극을 일시에 극복해버리고 만 것이다.”⁴⁰⁾ 김지하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오히려 그 죽음 자체를 받아들인 결정에 성스러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인간적인 가치와 모든 고상한 것들이 통일되는 빛나는 절정”을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오에 겐자부로도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김지하의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말은, 그의 정치적 삶의 태도와 자기표현이 예술 활동의 상상력적인 삶의 태도, 자기표현으로 통일되는, 통일된 것으로서 자기에게 경험된다는 계시의 감정을 나타낸다.”⁴¹⁾ 이러한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김지하의 정치성은 그의 예술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몸으로 받아들여졌다.

오에 겐자부로도 1970년대 담시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1980년대 출간된 김지하의 『대설 남』을 읽고 쓰루미 순스케와 나눈 대답에서, 김지하의 정치적 상상력이 제국 일본에 의한 식민 지배의 과거와 현재를 문제 삼는 시각에도 닿아 있음을 이야기한다. “여러 곳에서 그러한 (식민지 조선을 수탈하는-인용자) 일본에

39) 大江健三郎, 「譚詩について」, op.cit., p.83.

40) 김지하, 「고행...1974 (중)」, 동아일보, 1975년 2월 26일.

41) 大江健三郎, op.cit., p.71.

대한 언급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에 대한 응어리진 적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김지하는 미시마 유키오에 대해 미시마의 죽음을 놓고 ‘별것 아니여, 조선의 민중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 간 일본인이 여전히 천황폐하만 세라고 하면서 죽은 것뿐이라’는 식의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미시마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일본의 하나의 상징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⁴²⁾ 「아주까리 신평-미시마 유키오에게」를 예로 들면서, 오에 겐자부로는 과거의 식민 통치를 반성하지 않는 전후 일본에 반감을 표출하는 김지하의 사고를 뚜렷하게 인지한다. 그의 정치적 상상력이 당장의 한반도 내부 사정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시점에 이르까지의 한반도 역사에 드리운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지하 시의 정치성을 통시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글을 포함하여,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는 그의 행적·사상·작품·종교와 관련한 다방면의 접근법을 취하는 비평 텍스트이다. 그에 더하여 무로 겐지는 이 책의 부제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를 부각한다. “이 책에 모인 글들은 김지하를 도울 목적으로 그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려고 모은 것이 아니다. 혹은 김지하에 대한 해설, 입문이라는 것도 아닌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각각 김지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쓰여 있을 것이다.”⁴³⁾ 따라서 이 안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이 1부에 실린 김지하의 미발표 시 11편이다. 그가 집필한 선언문 등을 중심에 두지 않고, 시를 맨 앞에 실음으로써 일본 독자에게 김지하가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편자의 배치 의도가 여기에 드러난다. 김지하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누군가 미리 밝히지 않고, 독자가 직접 감응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피력하는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김지하 미발표 시 11편 「스무 살」, 「한 송이 박꽃」, 「소묘」, 「소매 치기」, 「대화」, 「역전」, 「금대리 고개」, 「새로운 소리」, 「웅골」, 「여름」, 「잊지마」의 한국어 시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하여 1976년 일본 한양사에서 출간된 『김지하 전집』에 수록된 「절규」와 「길」이 김지하의 시가 아니었다는 사실,⁴⁴⁾ 『김지하-민중의 소리』(1974)와 『김지하 시집』(1974)에 포함된 『민중의 소리』가 실

42) 오에 겐자부로·쓰루미 슌스케, 「대담: 대설(大說) 『남』을 읽고」(『海』, 1983년 4월호, 中央公論社), 『김지하-그의 문학과 사상』, 도서출판 세계, 1985, 133면.

43) 室謙二, op.cit., p.5.

44) 김지하, 「편집자 주」, 『결정본 김지하 시전집 1』, 도서출판 솔, 1993, 356면 참조.

제로는 장기표의 창작물이었다는 사실⁴⁵⁾에서 유추할 때, 일본에서 간행된 김지하 출판물이 텍스트의 신뢰성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역자도 불분명하므로, 1975년 피검된 김지하가 남긴 노트와 원고용지에 적힌 시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작품들의 진위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이를 다루는 연유는 모두에 밝힌 것처럼 11편의 시가 김지하의 작품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송이 박꽃」과 「매장」, 「금대리 고개」와 「치악산」의 연관성뿐만 아니다. 4·19혁명을 겪은 그의 청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까리 등불”을 밝히는 「스무 살」, 비슷한 시기에 쓰인 작품으로 추정되는 「1971년 4월 한국」·「밤나라」·「나팔 소리」와 「새로운 소리」를 아우르는 각종 “소리”들의 지배적 심상에서도 김지하의 시적 인장을 찾을 수 있다. 그러한 근거를 지표로 본고는 이 시들을 김지하 텍스트의 자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점은 문맥의 방향이 김지하 미발표 시 11편에 대한 진위를 명백하게 판가름하는 데 있지 않고, 이 작품들이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에 배치되어 일어나는 독해 및 수용의 ‘효과’에 기울어 있다는 것이다.⁴⁶⁾ 이 시들을 소개한 뒤 말미에 붙인 펴낸이의 주석을 우선 예로 들 수 있다.

청춘의 상징인 자랑스러운 스무 살의 기대를 ‘4·19’로 시작하는 시인의 청춘으로 교차시켰던 「스무 살」. 꺾기를 억제할 수 없는 열정과 청청 얹어맨 현실에 대한 초조함을 노래하는 「한 송이 박꽃」. 마음씨 착하고 선량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소매치기가 되어 있던 남자의 비애를 이름 없는 민중의 혼한 운명에 빗대어 그린 「소매치기」. 이 소매치기는 또한 「고행...1974」에 등장하는 시인의 분신인 범직자의 본모습을 방불케 한다. 통일을 향한 민족의 염원을 담은 ‘7·4공동성명’에 대한 배신감을 비웃는 「대화」. 사람들 속에서 고독과 무위한 나날을 살아가는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심상을 스케치한 「역전」. 생활 가운데에서부터 새로운 시대를 예지하는 「새로운 소리」. 썩은 서울에서 꿈쩍하지 못하고 그저 피가 엉긴 꿈을 곱씹는 날의 고뇌를 노래하는 「여름」. 그리고 폭풍 속에서 피어오르는 왕대처럼 민족의 역사적 수난을 넘어 불

45) 장문석, 「현해탄을 건넌 ‘타는 목마름’: 1970년대 일본과 김지하라는 텍스트」, 110~116면 참조.

46) 특정한 실체를 확정하는 것보다, 그것이 배치된 장-불러일으키는 파장에 주의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질 들뢰즈 저, 이정우 역, 『의미의 논리』, 1999, 149면 참고.

타오를 민중의 자유를 요구하는 외침과 붙잡혀 압박을 받고도 여전히 전열에
복귀해 오는 친구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노래한 「잊지마」 등.⁴⁷⁾

무로 켄지는 김지하의 미발표 시 11편에 대한 짧은 해설과 안내를 겸하여, 이 작품들이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 상황에서 시인의 고충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서정시”임을 강조한다. 이는 『비어』와 『오적』 등 정치 탄압에 맞서는 문학적 지사로서의 김지하 표상이 주를 이루었던 기존 김지하 출판물과는 구별되는, 풍파를 헤치고 의연하게 나아가는 투사 김지하가 아닌 울고 괴로워하면서 힘겹게 발걸음을 떼는 인간 김지하의 갈래를 만들어낸다. 「금대리 고개」가 대표적이다. “산속 하얀 길 / 낙엽송 / 저물어가는 햇살 // 저 고개를 돌고 돌아 / 넘고 또 넘어 / 이제 떠나고 없는 / 그대를 찾아간다 / 산비탈 높이 솟아올라 / 구름 사이로 떠오른다 / 하늘은 다가와 무너져 내려 / 다리가 부어올라 뻗뻗해질 때까지 / 밟고 넘어가는 고갯길 / 먼지로 얼룩진 길가의 들꽃들 // 시냇물 너머 저 마을 / 등불 켜지는 해 저문 저녁 / 빛나는 별들 절규하는 바람 / 물소리 개 짖는 소리 // 누구를 찾아 나는 가는가 / 시집간 누이를 찾아가 / 피곤하고 병든 몸 의지가 지없는 나 / 땀에 전 옷깃에 눈물이 번진다 // 시냇물 속 나는 무엇을 / 구하러 가는가 / 터질듯한 가슴 / 아물거리는 산맥”.⁴⁸⁾

이 시의 ‘나’는 금대리 고개를 넘는 중이다. 그 길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다.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너’를 찾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너’는 벌써 떠나 사라졌으므로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나’는 ‘너’를 진짜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누구를 찾아 나는 가는가”, “나는 무엇을 / 구하러 가는가”라고 스스로 되묻기 때문이다. ‘나’는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한데도 불확실한 목적지를 향해 ‘나’는 지쳐 올면서 계속 올라간다. 이는 김지하의 초기 시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인 「황톳길」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핏자욱 핏자욱 따라 / 나는 간다 (……) / 총부리 칼날 아래 더위 속으로 / 나는 간다 (……) / 너의 목소리를 느끼며 흐느끼며 / 나는 간다”⁴⁹⁾에서

47) 室謙二, op.cit., pp.29~30.

48) 室謙二 編, 『金岱里峠 (江原道原州郊外)』 전문(필자 번역), 앞의 책, 23~25면. 이 책에 실려 있는 김지하 미발표 시 11편은 일본어 판본 텍스트와 한국어 해석을 병기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49) 김지하, 「황톳길」, 『황토』, 한얼문고, 1970.

도 ‘나’는 역경 속에 전진한다. 여기에서는 “총칼 아래 쓰러져간 나의 애비”의 “목소리를 느끼며 흐느끼며” 함께 그 역사적 현장의 기원으로 공명하며 간다. 반면 「금대리 고개」에서 ‘나’는 여정의 동반자가 없다. 게다가 훨씬 피로한 상태이다. 그래도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거침없는 풍자로 독재 권력에 대항하는 시인 김지하 표상은,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으나 심신이 깊이 상처 입어 고뇌하는 인간 김지하의 모습이 덧씌워지면서 일면적인 강건함을 탈피한다. 「금대리 고개」 앞에 실려 있는 「역전」도 비슷하다. “해 질 녘 초라한 부끄러움 따위를 끌어안고 / 돌아가는 나를 문득 / 낯선 바람이 에워싸고 말을 건다 / 보이지 않는 전장의 바람 // 굶어 죽은 아이가 우는 소리 / 청계천에서 풍기는 냄새 나는 바람 / 동작동 상공에서 휘몰아치던 한 서린 바람 / 깊숙한 궁궐의 푸른 지붕을 덮고 소용돌이치던 썩은 바람 / 땅 밑에서 출렁이는 불의 바람 / 무수한 바람이 나를 재촉한다 / 지금까지 살아서 무엇을 했는가 / 나의 발걸음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 염천교 다리 위에서 서성거린다 / 여기 살아 해매는 사람들은 왜 이토록 생기가 도는가 / 캄캄한 다리 밑 화물차에 실린 고등어가 불그스름하다 / 어디선가 무슨 새인가 날아와 / 거무칙칙한 길에 조각처럼 해매며 난다”⁵⁰⁾

이 시의 ‘나’는 해가 질 무렵 서울역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회한에 휩싸여 지난날을 돌아본다. “나의 발걸음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 염천교 다리 위에서 서성”이는데, 이때 그에게 한국의 현실을 제유하는 바람이 불어와 이야기를 건넨다. 이는 ‘나’의 “초라한 부끄러움”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움이 이어진다는 전언인 까닭이다. 청계천, 동작동, 청와대 등에서 불어오는 각양각색의 바람들은 “땅 밑에서 출렁이는 불의 바람”으로 수렴된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재촉”한다. 하지만 선뜻 그러지 못하고 그는 염천교 위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그러지는 장면들-생기가 도는 살아 해매는 사람들, 불그스름한 생선을 실은 화차, 해매며 나는 새는 ‘나’의 내면과 조응하여 포착된 풍경이다.⁵¹⁾ 상흔의 대비와 반영으로서 제시되는 시적 이미지들은 그의 고백과 결합하여 쓸쓸한 정서를 환기한다.

50) 室謙二 編, 「馭前」 전문, op.cit., pp.22~23.

51) 가라타니 고진 저, 박유하 역, 「풍경의 발견」과 「내면의 발견」,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 비, 2010 참조.

이 책에 같이 실린 모든 시가 명료해 보이던 길이 무너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⁵²⁾를 자문하는 시인의 심경이 엿보이는 작품은 아니다. 4·19혁명을 겪은 “스무 살 / 이 피 뜨거운 가슴”을 회상하는 「스무 살」⁵³⁾, 노동과 농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왕성한 에너지를 예찬하는 「새로운 소리」⁵⁴⁾, 눈 내리는 곳에서 피어나는 “붉은 진달래 물결”과 거센 비바람을 뚫고 자기 존재를 외치는 “왕대” 같은 믿음직한 벼들을 독려하는 「잊지마」⁵⁵⁾에서는 김지하의 결연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처럼 그동안 김지하 표상은 역경에 좌절하지 않는 전사의 풍모가 전면화되었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언정 그의 굳건함이 의심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데 거듭된 투옥과 고문으로 쇠약해진 시인의 고독한 자의식이 「양심선언」 외에, 「금대리 고개」나 「역전」 등의 시를 통하여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 소개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고는 김지하 텍스트가 일본에 수용되고 전파되는 양상이 “정치 우선”이라는 비판만으로는 포괄되지 않을 입체적인 흐름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일본 내 김지하 표상의 재고 가능성

본고는 김지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차치해서는 안 되는, 한국 바깥에서 김지하를 바라본 입장의 한 가지 갈래를 검토하였다. 1970년대 김지하 연구로 시기를 한정한다면 이때는 그를 인식하는 국제적 시각이 더욱 중요해진다. 양적으로는 이 시기에 김지하 표상을 생산·유통·확산시킨 관련 텍스트가 한국에서보다 외국-특히 일본에서 더 많이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 김지하는 1970년 『황토』를 출간하고 12년이 지난 1982년이 되어서야, 시선집 『타는 목마름으로』⁵⁶⁾를 한국 독자에게 선보이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전까지 그는 투옥과 재판에 거듭하면서 시집을 묶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김지하 시가 그 사이 국내 신문과 잡지 등에 발표되지

52) 室謙二 編, 「一輪の夕顔」 부분, op.cit., p.19.

53) 室謙二 編, 「二十歳」 부분, op.cit., p.18.

54) 室謙二 編, 「新しい音」 부분, op.cit., pp.25~26.

55) 室謙二 編, 「忘れるな」 부분, op.cit., pp.28~29.

56)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창작과비평사, 1982.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즉각 압수와 판금 조치를 취하면서 김지하 시가 세간에 유포되는 것을 막았다. 반면 동시대 일본에서는 김지하를 키워드로 한 단행본 출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에 관한 지성계의 논의도 거리낌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더불어 김지하의 구명을 위한 ‘김지하를 돕는 모임’ 등이 조직되어 단식과 행진 시위 등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 나갔다.

일본에 김지하가 소개되던 초창기에는 필화에 휘말린 『오적』과 『비어』 등 담시가 그의 저항적 풍자시로 널리 알려졌다. 이는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그의 현재와 맞물려 투사 시인 김지하의 표상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타 요소들을 소거하고 김지하의 정치성만을 부각하는 일본 내 편향적인 흐름을 지적하는 주장이 일찍이 제기되었다. 또한 그러면서 도움 주는 쪽과 도움받는 쪽의 일방적 시혜 관계를 공고히 하고, 김지하 문학의 총체성을 선택적으로 누락하며, 제국과 식민지라는 가까운 과거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그동안 김지하 표상의 주류가 강인한 투사 시인이었던 만큼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상처 입은 채 방황하는 인간 김지하가 겹쳐 지면서 그에 대한 표상의 변모도 일어난다. 이처럼 본고는 김지하 관련 출판물 중 한 권인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그에 관한 다채로운 텍스트 실천과 독자 반응이 얹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지평을 형성하는 맥락을 살펴보았다.

이상 본고는 1970년대 일본에서의 김지하 담론을 논구하였으나 그 한계를 다 메우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가진 김지하 텍스트의 대표성 문제와 김지하 미발표 시의 진위 논란 등에 관하여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교문학적 관점의 서술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 특정한 사건에서 김지하를 단순한 독립변수로 간주하지 않으려면, 1970년대 한국과 일본의 정치·사회·문화와 결부된 문학사회학적 양상이 보다 치밀하게 고찰되어야 한다.⁵⁷⁾ 분석 대상은 김지하 한 사람으로 좁혀지지만, 그를 둘러싼 역학 관계는 복잡하게 얹혀 있기 때문이다.⁵⁸⁾ 이는 본고의 차후 과제로 삼는

57) 범박하게 보면 문학사회학은 문학과 그것이 산출된 사회와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작업을 뜻한다. 본고는 문학사회학을 작품에 내재한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 작품을 메타적으로 파악하는 ‘사회적 의미화’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김치수, 「문학과 문학사회학」, 『김치수 문학전집 2: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15, 25면 참조.

58) 김지하가 지학순 주교로 대표되는 가톨릭과 친분을 맺은 사실과도 관련된다. 이는 세속 권력과

다. 당시 김지하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공적 권력의 공모와 한국과 일본 지식인이라는 대항 권력의 연대가 격돌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분화하는 발화점이었다. 본고는 그 일부의 단면을 드러내었다.

투고일: 2023.03.11

심사일: 2023.05.24

게재확정일: 2023.06.20

종교 권력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갈등으로 비화되며, 김지하 문제가 한국을 벗어나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확대되는 현상과도 이어진다. 『김지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에도 수록되어 있는 「산티아고 선언' 탈환으로」, 「김지하의 가톨릭·레이컬한 사상의 근원」, 「神과 혁명의 통일」은 가능한가」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논해야 하므로 논제를 달리한 후속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부록] 김지하 미발표시 11편⁵⁹⁾

일본어 판본	한국어 번역
二十歳 月が流れているところ あの 果しない雲の上にいてほしい 輝かしく 澄みきって 大らかに 燃えようとも 一夜を 夜を徹して 燃えようとも つきることない蓖麻子の灯 貧しい子供の夢のなかに生きてほしい 暴風のさなかで 真竹はしっかりと育ち 二十歳 この血潮熱き胸よ 素裸でも 四月の青さと 黄土のまばゆさが 鎧となろう	스무 살 달이 흐르고 있는 곳 저 끝없는 구름 위에 있고 싶다 눈부시게 맑고 흐드러지게 타오르더라도 하룻밤을 밤새워 타오르더라도 다하지 않는 아주까리 등불 가난한 아이의 꿈속에 살았으면 싶다 폭풍 속에서 왕대는 튼튼히 자라고 스무 살 이 피 뜨거운 가슴이여 알몸이라도 4월의 푸르름과 황토의 아지랑이가 갑옷이 되리라
一輪の夕顔 深い真夜中 山脈が哭き 奇異な旅人の足どり 松林に消え 跡かたもなし かすかな星の光に 石のみ輝く こうしよう ああしよう わたしはどうすべきか 枕当てに身悶え苦しむ 舌の先に 山脈が哭き 捨てた鎌たち 起きあがり 凝視する一輪の夕顔	한 송이 박꽃 깊은 밤중 산맥이 울부짖고 낯선 나그네의 발걸음 소나무 숲으로 사라져 자취도 없다 희미한 별빛에 돌만 빛난다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나는 어찌해야 할까 베개에 기대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혀끝에서 산맥이 울부짖고 버린 낫들 일어나 응시하는 한 송이 박꽃

59) 일본어 판본을 한국어로 옮기는 데 시인이자 번역가인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장인수 선생님의 감수를 받았다.

素描	소묘
豆つぶ くらって おやじにとっつかまったちびっ子 鞭打たれて泣いている 砂原に掘られた水溜りに 真っ青に映る 空に向かって唾をはき おやじも哭く 郭公が鳴く 豆つぶちよっぴりくらって 泣いている おやじにとっつかまり ちびっ子 鞭打たれて泣いている 砂の畠 掘りかえした穴ぼこ いっぱいの真っ青な空 おやじも哭く	콩알 먹고 아버지에게 딱 붙잡힌 꼬마 매 맞아 울고 있다 모래밭에 파인 웅덩이에 새파랗게 비친다 하늘 향해 침 뱉고 아버지도 운다 뼈꾸기가 운다 콩알 조금 먹고 울고 있다 아버지에게 딱 붙잡혀 꼬마 매 맞아 울고 있다 모래밭 다시 파인 구멍 가득히 새파란 하늘 아버지도 운다
スリ	소매치기
月明りのなかで 夕顔がおぼろげに夢みる 月明りのなかで 笛吹いていた子は そんなわけで スリになったのさ 針の耳に糸通しながら 眼がかすんだ祖母がいつも 仇とっていた あゝ貧乏のため 帰ってくるよと 村はずれで 帰ってくるよと叫んでいた夜は星影かすみ 鵲蛙の鳴き声が いっぱいだった そうではないんだ 手を握って哭いていた 祖母を決して忘れたわけではない 角が生えたわけでも 足が六本あるわけでもないソウルのひと あの子はどうしても そうはなれず 転びながら もがきながら 寒いなかをさまよったあげく 監獄にいた 目を醒ました夜明けにはスリになって	달빛 속에서 박꽃이 아련히 꿈꾸는 달빛 속에서 피리 불던 아이는 그런 까닭에 소매치기가 된 거야 바늘귀에 실을 꿰면서 눈이 침침한 할머니가 항상 원수라고 한 그 가난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동구 밖에서 돌아오겠다고 외치던 밤은 뿌연 별빛 쉰 목소리로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할머니를 결코 잊을 리 없다 뿔이 난 것도 다리가 여섯인 것도 아닌 서울 사람 저 아이는 어떻게 해도 그렇게는 될 수 없고 넘어지면서 몸부림치며 추위 속을 헤매다가 감옥에 있었다 눈을 뜬 새벽에는 소매치기가 되어

対話	대화
われらみんなを 浮かれさせ われらの目をことごとく出会いの歓びに なびかせ お前をみつめていた視線をそらさせておき 闇夜に こそこそ どろぼう猫	우리 모두를 들뜨게 하자 우리의 눈이 전부 만남의 기쁨으로 감기게 하자 너를 주시하던 시선을 허공에 두고 어둔 밤에 살금살금 도둑고양이
駅前	역전
日暮れどき みすばらしい恥かしさを抱きしめ 帰る私を 不意に 見知らぬ風がとりかこみ 語りかける 見えない戦場の風 餓死した子供の泣き声 清溪川からもれてきた臭い風 銅雀洞の上空で 巻きあがっていた 恨みこもる風 奥深い宮殿の青い屋根を覆い 渦まいていた腐った風 地の底で ゆらめく火の風 無数の風が 私をせきたてる 今まで生きて 何をしたのか 私の足どりは行方をつかめず ヨムチョンギョの橋の上でうろつく ここに生きてさまようものたちが なぜこのようにみずみずしいのか 真暗な橋の下 鯖ついた貨車が赤っぽく どこからか なんという鳥だろう 飛んできて どす黒い雑巾の切れ端のように さまよい飛ぶ	해 질 녘 초라한 부끄러움 따위를 끌어안고 돌아가는 나를 문득 낮선 바람이 에워싸고 말을 건다 보이지 않는 전장의 바람 굶어 죽은 아이가 우는 소리 청계천에서 풍기는 냄새 나는 바람 동작동 상공에서 휘몰아치던 한 서린 바람 깊숙한 궁궐의 푸른 지붕을 덮고 소용돌이치던 썩은 바람 땅 밑에서 출렁이는 불의 바람 무수한 바람이 나를 재촉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 나의 발걸음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염천교 다리 위에서 서성거린다 여기 살아 해매는 사람들은 왜 이토록 생기가 도는가 캄캄한 다리 밑 화물차에 실린 고등어가 불그스름하다 어디선가 무슨 새인가 날아와 거무칙칙한 길레 조각처럼 해매며 난다

金岱里峠 (江原道原州郊外)	금대리고개 (강원 원주 교외)
山々 白い道 落葉松 暮れゆく陽差し あの峠をめぐりめぐり 越え また越えて もう旅立っていない 君をたずねて行く 山の頂き高くそそり立ち 雲間にうかぶ 空は迫り崩れて迫り 私の足がはれあがり 棒になるまで 踏み越えて行く 峠の道 埃にまみれた道ばたの野の花たち せせらぎのむこうのあの村 灯りともされ暮れゆく夕べ 輝く星たち 叫ぶ風 水の音 犬吠える声 だれをたずねて私は行くのか 嫁いだ姉をたずねて 疲れて病んだ身 頼るところもない私 汗くさい襟元に 涙がにじむ せせらぎのなか 私はなにを 求めて行くのか はりさける胸 かすむ山脈	산속 하얀 길 낙엽송 저물어가는 햇살 저 고개를 돌고 돌아 넘고 또 넘어 이제 떠나고 없는 그대를 찾아간다 산꼭대기 높이 솟아올라 구름 사이로 떠오른다 하늘은 다가와 무너져 내려 다리가 부어올라 뻗뻗해질 때까지 밟고 넘어가는 고갯길 먼지로 얼룩진 길가의 들꽃들 시냇물 너머 저 마을 등불 켜지는 해 저문 저녁 빛나는 별들 절규하는 바람 물소리 개 짖는 소리 누구를 찾아 나는 가는가 시집간 누이를 찾아가 피곤하고 병든 몸 의지가 없었던 나 땀에 젖은 옷깃에 눈물이 번진다 시냇물 속 나는 무엇을 구하러 가는가 터질듯한 가슴 아물거리는 산맥

新しい音	새로운 소리
油にまみれた腕に あの新しい音 엔진의音叫ぶ音 鉄のぶつかり あう音の新しい音 破れた袖口に 埃にまみれた眼に やせこけた頬 乾いた唇にも 映える空 映える 映える 真っ青な空 新しい音をたどれば 青い松林ひろがるだろうか 白衣きた母 熊手使う 真っ青な 風が 終日 雲のせて運び とうもろこし によきによきのびる音 新しい音 ああ 音	기름투성이 팔에 저 새로운 소리 엔진 소리 부르짖는 소리 철 맞부딪히는 소리 새로운 소리 찢어진 소맷부리에 눈곱 낀 눈에 양상한 뺨 마른 입술에도 빛나는 하늘 빛나는 빛나는 새파란 하늘 새로운 소리를 더듬어가면 푸른 소나무 숲이 펼쳐질까 흰옷 입은 어머니 갈퀴질하는 새파란 바람이 종일 구름을 실어 나르고 옥수수 쭈쭈 자라는 소리 새로운 소리 아아 소리
ウンゴル (村の名をさす)	웅골 (마을 이름을 가리킨다)
捨てて 捨てて 行ってしまった 繕い 繕って はいていたゴム靴も木履も 家も捨てて 行ってしまった 遠く遙かな雲 ああ 雲をこえ行ってしまった 鬼の棲家 空っぽじゃない 鬼でいっぱい の棲家	버리고 버리고 가버렸다 고치고 고쳐 신어 온 고무신도 나막신도 집도 버리고 가버렸다 멀리 아득한 구름 아아 구름 넘어 가버렸다 귀신 나오는 집 아무것도 없지는 않아 귀신 가득한 집
夏	여름
終日 鬱陶しく曇った空 南の道づたいに 旅だいたい 見たこともなかった故郷へでも行きたい 皮膚を焼く真夏の陽差しのもと さめた汗 またわきたぎらせるために いま あの丘の麦畑はみな刈りとられ 暑い風だけが吹きぬけているだろう 山の急斜面の下 干上った小川の跡には 葛の葉群れが青々と生い繁っているだろう 腐ったソウルの街をぬけどし どこへも 行けぬというのか 娼婦のようなこの身 暗い路地にうずくまり 凝血した夢を噛む	종일 울적하게 흐린 하늘 남쪽 길 따라 떠나고 싶다 본 적도 없는 고향이라도 가고 싶다 살갗을 태우는 한여름 햇살의 근원 식은땀 다시 덥히기 위해서 지금 저 언덕의 보리밭은 모두 깎여 더운 바람만 지나고 있겠지 산비탈 아래 메마른 개울에는 참덩굴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겠지 썩은 서울 거리를 벗어나 어디에도 못 간다는 말인가? 창부 같은 이 몸 어두운 골목에 웅크리고 피가 엉긴 꿈을 깨문다

忘れるな	잊지마
忘れるな 禿げ山 いっぱいに あの春 雪降るなかから咲きはじめた 赤いつつじの波 限りなく青々とひろがっていた 山の彼方のあの空	잊지마 민둥산 가득히 저 봄 눈 내리는 가운데 피기 시작한 붉은 진달래 물결 한없이 푸르게 푸르게 펼쳐져 있던 산 너머 저 하늘
忘れるな 暴風のなかからこそ 暴風のなかからこそ 激しく萌えいでる 小さなあの真竹の叫ぶ声	잊지마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격렬하게 싹트는 작은 저 왕대가 외치는 소리
縛られていった後に ながいながい試練の後に みんなが忘れてしまった後に ひょっこり帰ってきて 君のそばに再び立った 友らのすがた	묶여간 뒤에 기나긴 시련 뒤에 모두가 잊어버린 뒤에 불쑥 돌아와서 네 곁에 다시 선 벗의 모습

참고문헌

-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季刊三千里』, 『世界』
김지하, 『황토』, 한얼문고, 1970
_____, 『타는 목마름으로』, 창작과비평사, 1982
_____, 『애린 1』, 실천문학사, 1986
_____, 『결정본 김지하 시전집 1』, 도서출판 솔, 1993
_____, 『김지하 전집 2: 사회사상』, 실천문학사, 2002
_____, 『김지하 회고록-흰 그들의 길 2』, 학교재, 2003
_____, 『김지하 회고록-흰 그들의 길 3』, 학교재, 2003
室謙二 編, 『金芝河: 私たちにとっての意味』, 三一書房, 1976
- 가라타니 고진 저,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 비, 2010
김치수, 『김치수 문학전집2: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2015
윤건차 저, 박진우 외 역,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 1945년 이후의 한국·일본·재일조선인』,
창비, 2009
윤구병·임현영 외, 『김지하-그의 문학과 사상』, 도서출판 세계, 1985
이진경 저,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 한국의 군사주의·성 노동·이주 노동』, 소명출판,
2015
질 들뢰즈 저, 이정우 역, 『의미의 논리』, 1999
大村益夫, 『朝鮮近代文学と日本』, 緑蔭書房, 2003
鶴見俊輔, 『鶴見俊輔集 12: 読書回想』, 筑摩書房, 1992
- 요네타니 마사후미, 「전후 일본에서 식민주의 비판 생성-쓰루미 슌스케와 스즈키 미치히코의 경우」, 『일본비평』 27,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장문석, 「현해탄을 건넌 ‘타는 목마름: 1970년대 일본과 김지하라는 텍스트」, 『상허학보』 58,
상허학회, 2020
_____, 「연대의 이념에서 주체성의 세계로: 냉전기 일본의 조선문학 연구와 조선어」, 『일본비평』 14,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2
장사선, 「일본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Kim Ji-ha's discourse in Japan in the 1970s — Focused on 『Kim Ji-ha: Meaning for us』

Heo, Jun-haeng

This article is a study of Kim Ji-ha's discourse in Japan in the 1970s, focusing on 『Kim Ji-ha: Meaning for Us』, edited and published in Japan by Kenji Muro in 1976.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e discussion i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the external point of view, which is indispensable for conducting Kim Ji-ha's research at that time. 『Kim Ji-ha: Meaning for Us』 is a book that takes the form of a review book, breaking away from the form of Kim Ji-ha's works, which have occupied the majority. In addition, works listed as Kim Ji-ha's unpublished poems.

In this article, regardless of the authenticity of these works, I paid attention to the 'effect' of reading and acceptance that occurs when the poems are arranged in 『Kim Ji-ha: Meaning for Us』. At that time, Kim Ji-ha in Japan was generally evaluated as a poet with anti-government political consciousness. This article, as a result of examining Kim Ji-ha's unpublished poems and reviews about them, it was found that they were not uniform.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historical issue of empire and colony was also discussed in Kim Ji-ha's discourse in Japan. In the midst of conflict between the collusion of international public power and the solidarity of opposing power, Kim Ji-ha's discourse is not a single representation, but divided and entangled into various spectrums.

Key Words : Kim Ji-ha, Japan, Korea-Japan relations, unpublished, 1970s

